



월드컵, 읽으면서 즐긴다

매니아층 염두에 둔 월드컵 관련서 잇따라 출간

지난 10일 개막된 98 프랑스 월드컵의 열풍이 서점에도 불고 있다. 골수 축구팬 뿐 아니라 일반인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월드컵 이야기가 여러 권의 책으로 선보였다. 한·일공동개최이긴 하지만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등 월드컵 분위기가 관련서 출간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일부에서는 출판문화의 새로운 경향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스포츠매니아의 등장과 함께

월드컵 관련서의 잇따른 출간을 새로움의 징후로 보는 이들은 90년대 들어 우리나라 문화지형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매니아층의 출현을 염두에 둔다. 영화 매니아들이 전문적이고 다양한 영화서 출간을 도운 것처럼 월드컵 관련서의 출간은 스포츠 매니아들의 등장을 배경으로 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출간된 월드컵 관련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니아들의 영향력을 미약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다. 올해 가장 먼저 선보인 《월드컵 축구 1584》(서음)은 오랫동안 축구 캐스터로 활약해온 KBS 아나운서 박기만 씨가 썼다. 1930년 1회 대회부터 월드컵의 역사와 기록을 위주로 했는데, 암호문 같은 제목은 1930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1회 대회부터 94년 미국 월드컵까지 기록된 골 수에서 따다.

전 한겨레신문사 체육부장 유희락씨가 펴낸 《월드컵이야기》(문학사상사)도 월드컵의 지난 70년 발자취를 더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의 책과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월드컵이 경제·사회·체육·외교·안보면에서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까지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할 경우 8조원의 파급효과를 볼 수 있으며, 24만 5천명의 고용효과, 1조 3500억원의 순이익을 얻게 된다는 한국개발원(KDI)의 연구까지 인용했다.

이런 책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에피소드다. 1954년 스위스 대회에서 본선에 첫 진출한 우리나라,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월드

'98 프랑스 월드컵의 열풍이 서점에도 불고 있다. 축구 매니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여러권 나와 있어 '읽으면서 즐기려는' 이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월드컵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히는 펠레.



컵의 진기록들, 월드컵 무대를 누빈 슈퍼스타들의 이력 등. 매니아들은 경험을 확대하고 연구의 대상을 늘려가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그들은 월드컵 3회 우승팀에게 돌아가는 순금 1.8kg의 줄 리메 컵이 몇 번 도둑맞았고, 범인은 누구였으며 어떻게 되찾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일요신문사의 기자로 있다가 현재는 스포츠 평론가로 활동하는 기영노씨의 《월드컵과 붉은 진사들》(무당미디어)은 월드컵의 역사와 우리나라 월드컵 진출의 뒷얘기, 영원한 숙적 일본과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월드컵 특수의 일시적 현상에 그쳐

FIFA에 20만 달러(약 2억 6천만원)의 판권료를 제공하고 국내판으로 만든 《98 프랑스 월드컵 정보백과》(전5권 풀빛미디어)도 눈에 띄는 책이다. 본선 진출 32개팀의 역대 전적 및 예선 성적, 국가별 특징과 심도 있는 전력분석, 10개의 경기장 소개 및 상세한 경기 일정 등 이번 프랑스 월드컵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각국 축구 스타들의 모습과 전력을 소개한 것은 단순히 16강 진출을 지원하는 일반 대중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매니아 군단을 가장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책은 《월드컵으로 가는 77가지 이야기》(젊은나무). 월드컵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를 비롯해서 PC통신의 축구팬들의 단상을 모은 이 책은 축구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

부터 국가대표팀 전용버스에 적힌 무명 팬의 낙서까지 버리지 않았다. "월드컵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않아도 좋다...로 페즈가 아니라 호노우도가 일본에 귀화해도 좋다, 홍명보가 일본에 귀화해도 좋다. 단 몇

진 축구경기가 항상 내 눈에 보이고 들리면 그뿐이다..." 매니아의 가치중립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판매에서는 월드컵에 대한 관심만큼 폭발적이지 않다. 교보문고 영업자는 "월드컵 시즌을 맞아 평소보다는 판매부수가 늘었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독자들 역시 책은 여러 종이지만 내용에는 차별성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매니아군의 형성으로 월드컵 책을 필두로 한 스포츠 관련서 출간이 본격화할 조짐이지만 몇 십만 부씩 나가는 베스트셀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세분화된 주제와 다양한 내용을 담은 다품종의 책이 소량씩 발간되고, 또 소량씩 꾸준히 팔리는 앞으로의 출판동향이 예견된다. — 이현주 기자

월드컵 특수 활용한 출판행사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

월드컵 열기가 지구촌을 달구는 가운데 서점과 출판가에서도 월드컵 관련 행사가 펼쳐졌다. 컴퓨터서적 전문출판사 크라운출판사(대표 이상원)는 종로·영풍·을지, 경인문고·한겨레문고·정글북 등 서울·경기지역 21개 서점과 함께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월드컵 16강 기원, 행운의 대잔치'를 벌였다. 크라운출판사 발행서적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행운권을 배부하고 추첨해서 경품을 주는 행사지만 6월 18일 발행하는 《엄청 쉽다》 시리즈(전5권)를 홍보하는데 이번 행사를 심분 활용했다.

또, 교보문고(대표 박학인)는 대형서점이라는 점을 이용, 축구관련서를 모아 전시·판매했다. 축구교본부터 최근 나온 월드컵 관련서까지 많은 종수는 아니었지만 축구팬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이번 행사는 스포츠 이슈가 마케팅 전략의 하나가 될 수도



크라운출판사의 월드컵 관련 행사.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보문고 홍보과의 유지현씨는 "하루에 1권 정도 팔리는 책들을 모아놓으니 하루에 5권 이상 나갔다"고 전한다. 크라운출판사 역시 행사 이후 《엄청 쉽다》 시리즈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강원 부장은 "서점·출판업계가 비수기인 만큼 우리가 얻은 성과는 상대적으로 크다"며 "출판계가 공동의 이벤트를 벌이면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현주>